효광원

2022 Vol.36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효광원 보호처로시설

Contents _ 목차

Vol.36

03 교사 글 - 권영석 교사

05 아동들의 글 - 이○기, 백○범

08 퇴소자의 글 - 국○현

10 2022년 기획사업

-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 산림복지법인 배재에코브릿지

12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3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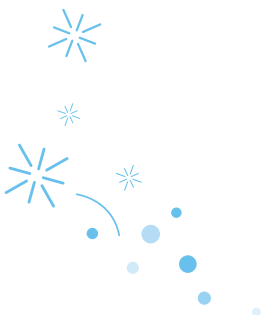
14 효우리 이모저모

16 효광원 활동 모습

21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2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23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한마루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발행인·지도신부 김현 마태오 **편집** 김중훈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돌아온 탕자?

글_**권영석** 교사

2019년 6월 21일 아이들과 눈물의 퇴사 인사를 나누고 4년간의 효광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자로 다시 효광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효광원을 떠나서도 한동안은 아이들과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울컥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오늘 당직근무는 어떤 선생님이 서고 있을까? 아이들은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멀리서나마 효광원을 추억하였었습니다.

그러던 11월의 어느 날 사회복지국 김장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나가게 되었고, 그 봉사 현장에서 저를 추억하는 효우리를 만났습니다. 제가 퇴사할 때 즈음에 신입 반에서 생활하던 친구였습니다. 밝게 인사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퇴사 인사하실 때 왜 그렇게 우셨어요?" 고백처럼 훅 들어온 아이의 질문에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미안해서.."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미안해서..'

효광원의 하루는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교사들과 아이들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견디어야 합니다. 그 하루의 무게를 실감했기에 그 전장(戰場) 같은 곳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던 저는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우리 효우리들과 다시 시작된 사랑과 전쟁”

그리고 다시 효광원으로..
인사발령을 받고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장으로 향하는 마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관을 위해서 전처럼 열심히 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마주하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한 첫 날..
2년 하고 절반이 지난 효광원은 예전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졌고, 고시원같이 좁았던 교무실은 깨끗하고 넓게 변해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에는 제가 그토록 소망했던 풋살장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막이 초원으로 변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한결같은 우리 효우리들..
아이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거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2년 6개월간 묵묵히 그 전장을 지켜주신 고마운 선생님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효광원에서의 2막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끝은 또 어떤 모습일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우리 효우리들과 다시 시작된 사랑과 전쟁..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아이들을 향한 나의 나침판 같은 단어는.. ‘존재가치!’
아이들의 존재가치..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황금과도 같은 값어치..
‘효우리들과 선생님들의 평화를 빕니다.’

지혜는 진리 속에만 존재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근묵자흑(近墨者黑)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

글_이○기

안녕 효우리 이미용반 효우미 이○기입니다.

저는 10월 13일에 보호관찰 위반으로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철없던 저는 보호관찰 위반 하나로 별 일이야 있겠냐는 생각과 또다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나가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탁 4주를 살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심리날이 왔고 밖으로 나가 자유를 누릴 들뜬 마음으로 호송차를 타고 창원 법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5.6호 처분을 받고 재판장을 나서며 울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고 멘탈이 나간 채 효광원으로 향하는 스타렉스를 타고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지난 방황을 했던 2년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날들을 뒤늦게 후회하며 효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11월 10일 저는 3-1호실 신입반 배치를 받고 신입 멘토들에게 기가 죽은채 시간이 지나 2-6호실로 본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낯선 효우리들과 6개월을 잘 보낼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배치 받은 본방은 제일 무서운 형들과 아이들이 있던 곳이였습니다. 지내다 보니 생각과는 달리 무섭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미지가 안 좋거나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조금씩 물들어 갔던거 같습니다. 근묵자흑이란 한자성어와 같이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 지듯이 저 역시 생활을 못하고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참도움과 교사 참도움을 자주 받게 되어 저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절 도와준 구세주와 같은 이○원이라는 효우리가 2-6호실에서 3-5호실로 전방을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이고 사회에서도 한다리 건너면 알았던 사이라서 금새 친해졌고 3-5호실에서의 생활은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원이 퇴소하면서 2-15호실로 전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번째 구세주와 같은 김○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친했고 자주 말도 했습니다. 저는 2-15호실에서 최대한 잘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우라는 친구와 취침 시간에 서로 로션을 짜며 장난을 쳤고 취침 방해로 그 방의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방인 2-12호실에서는 꼭 정착해서 퇴소 때까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형이 있었고 한명은 성격이 착했지만 나머지 한명은 성격이 나빴습니다. 그 성격이 더러운 형이 저에게 가오를 잡으려 했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참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알긴 했지만 결국 못 참고 싸우게 되어 또 다시 교사참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지속적으로 규칙 위반을 하였고 남들보다 성장단계도 낮았습니다.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워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장단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딱히 관심도 없었지만 성장단계 상승으로 혜택을 누리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고 나도 성장단계를 올려 혜택을 누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바르미로 복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귀하자마자 들뜨게 되었고 규칙위반을 하여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효우미-바르

미만을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작은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 달이 연장되어 한 달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저는 행실이 나빴던 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저는 이기적이었지만 효광원에서 배려심을 터득했고 반성을 하지 않았던 저는 반성이 뭔지 몸소 느끼고 배우게 됐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다 좀 늦었지만 저는 이제 퇴소를 하여 재학중인 고등학교를 다닐 것이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번 제가 방황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집안의 장남으로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가족과 떨어지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행동의 가치

글_백○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8일에 입소하여 현재 이곳 효광원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17살 백○범 효우리입니다. 저는 3월8일에 입소하여 하루하루 배우다 보니 벌써 효광원에서 3개월을 넘게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배우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정리해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꿈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을 갖지못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랬던 저는 이곳 효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칭찬해 주시고 '할 수 있다', '잘한다'라고 얘기해주셔서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곳에서 예절과 예의를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자주 하지도 않으며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제가 어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효광원에서 금요일마다 김덕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다가가기 쉬운 태권도라는 운동으로 저의 부족했던 예의와 예절을 배우고 인사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는 전처럼 예의 없는 제가 아닌 바뀐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90도로 허리숙여 인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처음으로 해봤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인거 같고 사회에서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었고 실천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효광원에서 선택했던 학습반 공부를 하다보니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갈피를 찾은거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생각하고 배우다보니 저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인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6개월을 이곳에서 보내야하나 생각하며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

님들에게 생활하며 힘들었던 것을 말을 하고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새 저는 마음을 열고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마냥 갇혀있는 곳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다보니 어느새 시간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저는 상위 성장단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며 제가 해야될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배드민턴을 자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새 방황을 하다보니 배드민턴을 점점 안하게 되었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서 배드민턴에 흥미를 찾게 되었고 나가서 배드민턴을 계속 하기위해 고등학교도 알아보며 저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하는 만큼 이득은 꼭 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곳 효광원에서 식기, 샤워실 청소, 쓰레기 청소 도우미, 빵, 우유도우미, 성가, 독서, 미사도우미 등 정말 많은 역할 수행을 많이 하였는데 그만큼 하면서 정말 힘든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혜택을 받은것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엇을 하며 노력한다는 것이 정말 바뀐 거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후회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다보니 1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과 나쁜소식이 들려오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 올때마다 정말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없었다면 나쁜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가 직접 풀어주고 할수있었을텐데 여기있다보니 그냥 듣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나쁜소식이 들어올때마다 후회를 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회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를 한만큼 더더욱 이런짓을 하지말아야한다라고 생각하게됩니다. 그러기에 후회를 하면 깨달음도 같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곳 효광원에서 할 수 있는 목표인데 이곳 효광원에서 '참도움' 이라는 징계를 단 한 번도 안 받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제가 이 목표를 얘기할 때 처음에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던 효우리들이 한 명, 한 명 점점 응원을 해주었고 저는 그 응원에 힘을 받아서 아직까지 받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얘기하다 보니 효광원에서 읽은 책 중에 나와있던 하나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명언은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데 있다.-칭기스칸'입니다. 제가 이 명언에서 느낀 점은 "무슨 일이든 이루려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끝은 내가 만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얻었고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침을 주셨고 정말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과 느낀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잊지 않고 사회에서도 실천할 것입니다. 효광원에서 배운 것들을 써먹고 느낀걸 주변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 아동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다 같이 좋게 지낼 것입니다. 남은 3개월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것이며 제 목표들을 모두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비록 잘못을 하여서 왔지만 여기 온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에 더욱더 노력할것입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노력할것입니다. 이곳 효광원에 온 것을 디딤발 삼아서 밟고 올라서 높은사람 또는 좋은사람이 될것입니다. 저는 효광원에서 6개월동안 알차게 배워서 나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이 감사로 바뀌어 가는 시간

글_국○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다 참아내고 저의 할 일을 하며 우리 가족과 함께 미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안녕 효우리 학습반 세우미 국○현입니다.
제가 입소 인사를 한 것이 7월인데 벌써 1월이 되어 이렇게 퇴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처음 이곳 효광원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마냥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대체 왜 효광원에 와야 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6개월이나 보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신입반에서 2주간의 생활을 끝내고 본 방을 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본 방에서의 생활도 적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하나라도 바꾸어 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낯을 가리는 제 성격을 고쳤습니다. 성격을 고치려 노력하다보니 어느새 본 방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바로 화를 내고 어른들에게는 정말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사과와 인정은커녕 화를 내고 거짓말만 하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의 이런 성격과 행동,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습관으로 인해 말다툼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거 같기에 다른 효우리들에게 저의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닝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낮아졌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닝미팅에 참여하다 보니 성장단계는 바르미로 오르게 되었고 바르미로 오르게 되자 성장단계에 욕심이 생기고 꼭 상위 단계로 올려보고자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세우미로 퇴소 인사를 하고있네요. 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기에 사회에서 4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한 번에 합격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인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을 버리고 꾸준히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4월에 검정고시 보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세요.
저는 이곳에 있다 보니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싸운 날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고 그 상황을 회피하기만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여기서도 어머니와 전화하며 가끔 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머니와 가족들과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효광원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반성하고 저의 문제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여기 온 게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7월 27일에 사회로 나갔다면 더 망가지고 저 자신을 잃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아버지 같은 장우준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게 잘 할 수 있다고 다독여 주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서도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바울라 수녀님, 이은혜 선생님 저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상담해주시고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효광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랑 친하게 지내준 형, 친구, 동생들아, 고마워 또한 훈이, 현준이, 강산이, 재민이, 민찬이, 형준이, 인웅아 너희들 덕분에 효광원에 있었던 시간이 전부 의미 있었고 시간도 빠르게 지나간 거 같아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반 형준이, 재민이, 윤형이 선생님 속 썩이지 말고 말 잘 들어라.
저는 나가서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다 참아내고 저의 할 일을 하며 우리 가족과 미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곱창을 먹으러 집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기획사업 I

청소년과 원가족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여행프로젝트(위드캠프)

지원기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사업목적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인 위드캠프 참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들의 캠프 참가 의지를 고취시켜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목적으로 위드캠프 참가 보호자에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대상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보호청소년과 보호자)

기획사업 II

밥상머리 작은기적 요리교실

지원기관 한끼 100원나눔운동본부

사업목적 비행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리 방법을 습득하여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함으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생계를 책임지는 바쁜 부모를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기획사업 III

정신·심리장애아동 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사업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더불어 아동의 원가족, 시설종사자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함.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중인 보호소년

기획사업 IV

산림복지법인 배재에코브릿지

지원기관 산림복지법인 배재에코브릿지

사업목적 본 사업의 대상자인 입소 아동들은 입소 전 제도권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원활한 레저 활동의 기회와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입소 기간 중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시설의 특수성(시간, 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 이러한 청소년 시기 아동들의 사회적 적응, 다양한 경험을 방학 중 레저 활동을 통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사업기간 2022년 8월~12월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 입소 중인 보호소년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0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실시하는 동계·하계방학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 보호소년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동계방학)

0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며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캠프 ★ 연간 2회 실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03. 국토종단 및 횡단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함. 동시에 보호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04. 위드 캠프(WITH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0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학습지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 연중 과목별 주 1회

0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된 보호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07. 어머니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균형 있고 영양가 높은 수제간식을 함께 만들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

★ 매월 주 2회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01. 성교육 치료집단

성경험 또는 성관련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하여 왜곡 된 성의식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지지하는 치료프로그램 ★연간 2회 실시(3월, 9월)

02.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금연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0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충남센터 '도박중독 치료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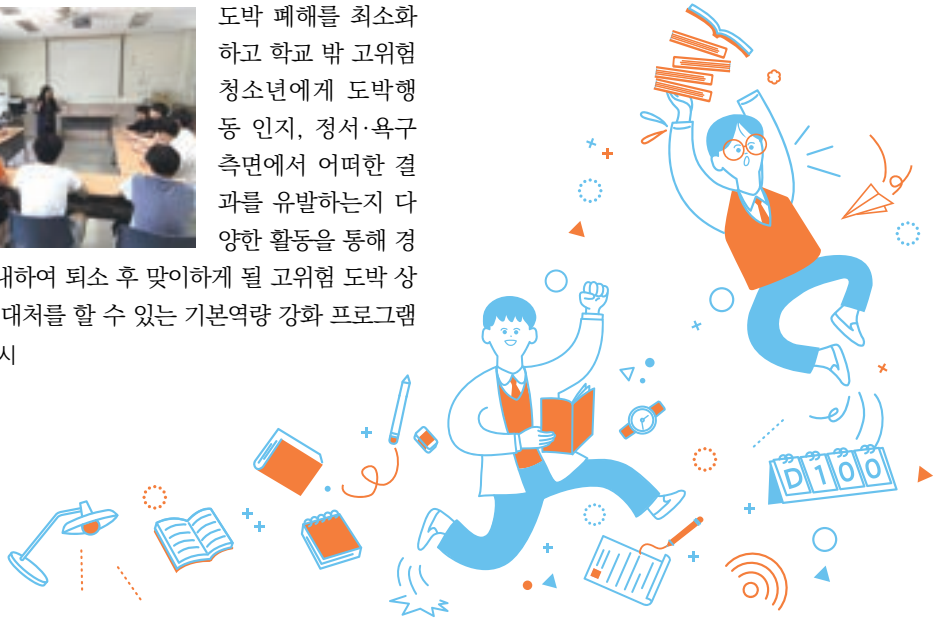
도박 폐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밖 고위험 청소년에게 도박행동 인지, 정서·욕구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안내하여 퇴소 후 맞이하게 될 고위험 도박 상황에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간 4회 실시

0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두드림(Do Dream)

꿈:드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연 3회 실시

0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 'HI프로그램'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진로고민을 해결하고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되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연 2회 실시



도박중독

삼겹살파티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광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쓰담달리기 실시

성년의 날

해양캠프 참여

두드림 프로그램 실시

배식봉사

동아리활동

효광원 활동모습

1월

22.01.03 마태오 원장 취임식

22.01.12~14 국립청소년해양센터(해양캠프)

22.01.15~16 대덕어린이집 도배자원봉사활동

22.01.18 계룡건설 물품후원

22.01.26 동구청 후원물품

22.01.26 탄방동성당 후원물품

22.01.27 동계방학 철권게임대회

2월

22.01.30~02.02 설날 프로그램

22.02.07 개학식

22.02.10 생일자 파티

22.02.11 운영위원회

22.02.28 장학금 수여식

3월

22.03.30 요리교실

4월

22.04.08 교통안전

22.04.08 부활 세례식

22.04.11 서울가정법원방문

효광원 활동모습

4월

22.04.12 삽겹살파티

22.04.20 쓰담달리기

22.04.16 부활전야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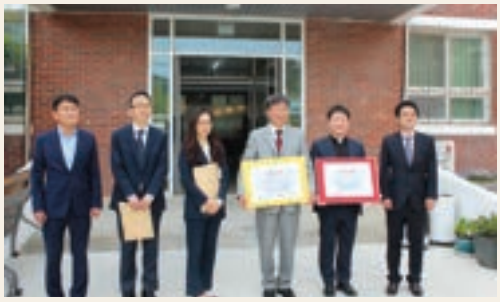
22.04.21 미스터피자

22.04.18 두드림

5월

22.05.09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방문

22.04.18 지역사회 대민지원



22.05.11 대전가정법원방문

6월

22.05.13 동아리 활동

22.05.31 부산가정법원방문

22.05.16 HI프로그램

22.06.03 배식봉사

22.05.16 성년의날 기념행사

22.06.08 배재에코브릿지 업무협약식

22.05.24 딸기 따기 체험 활동

22.06.09 인천가정법원방문

효광원 활동모습

6월

22.06.14 창원지방법원방문

22.06.29 수원가정법원방문

22.06.17 도박중독상담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효광원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의 정성을 이곳에 올립니다.

2022년도 상반기 후원금 내역

01월 ~ 06월

이형석, 박범현, 원신흥동성당, 이규원, 김왕수, 코밴아이러브피플, 장윤정, 오세정, 김민석, 신혜영, 주혜진, 박영자, 강아영, 김현주, 한민수, 김양순, 윤상훈, 심재광, 안상길, 김선영, 박미라, 월평동성당, 강준, 김도원, 법동성당, 가오동성당, 주연희, 최재환, 세종성베드로성당, 김지영, 이협수, 김현수, 홍준원

2022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내역

01월 ~ 06월

성심당, 투썸남대전IC, 마스터드론교육원, 박지훈, 계룡건설, 대전가정법원, 탄방동성당, 동구청, 매화떡집, 공세리성당, 대덕구장애인복지관, 한국아동복지협회, 김도헌, 대전꿈드림센터, 60계치킨산내점, 문창동성당, 산내동주민센터, 미스터피자방배역점, 대전아동복지협회, 산내농협, 오리온재단, 부산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정류장약국, 수원가정법원

자원봉사자

피아노 | 한진우
학습지도 | 최선희, 이진희, 박해숙, 이지연, 한진규
학원연합회 검정고시 학습 | 이봉환, 정경희, 조혜진, 이지연, 강수미, 김기정, 최 강, 강선숙 최경진
이용 자원봉사자 | 김보경, 송민아, 박선화, 강희연, 최금숙, 도하연, 김지연, 최미옥, 정대영, 이영진, 임재명, 황종섭, 전효진

2022년 보호치료시설효광원 **후원금 세입·세출 총괄내역**

사 업 명 전체

자금원천 후원금

검색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세입과목			세 입
관	항	목	
후원금 수 입	후원금 수 입	지정후원금	13,239,700
		비지정후원금	15,150,300
		합 계	28,39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후원금)	24,601,361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626
세 입 계			52,993,019

세출과목			세 출
관	항	목	
사무비	기 타 운영비	기타 후생경비	7,940
	운영비	제세공과금	320,000
		여 비	190,000
		수용수수료	1,098,000
		공 공 요 금	169,330
		차 량 비	130,00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1,320,000
사업비	운영비	생 계 비	1,578,600
		피 복 비	3,842,000
		의 료 비	1,567,600
		수용기관경비	183,500
		직업재활비	211,500
		특별급식비	147,100
		연 료 비	-
	사업비	사회심리 재활 사업비	13,151,010
		자립지원사업비	17,385,580
		교육재활 사업비	-
		도서구입비	-
	잡지출	반 환 금	17,385,580
세 출 계			36,140,422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후원방법

- 무통장입금 : 농협 453046-55-002444(효광원)
- 내 원 접 수 : 본 원에 방문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결 연

-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청소년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아 퇴소 후 사회복귀 및 적응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자나 연고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재원기간동안 면회 신청, 물품 후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안내

노력 봉사 활동내용 : 시설청소, 피복세탁, 시설관리, 식사(간식)제공, 식당지원 봉사, 생일자행사지원 등

학습 봉사 활동내용 : 교과목 및 특기 적성 교육(기초학습, 검정고시, 대입수학능력시험 준비)

전문분야 봉사 활동내용 : 축구, 헬스, 농구, 음악, 미술, 미용,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체험 봉사 활동내용 : 문화 체험 초청

전화문의 042-271-7053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